

대학도서관 변화의 방향 * — 주제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정재영**

目次 :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방법

본론

- 1.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 주제관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 2. 대학도서관 변화의 영향 : 주제관 모델을 중심으로
 - 2.1 도서관 조직의 변화
 - 2.2 인적자원의 변화 - 주제전문사서의 양성
 - 2.3 서비스의 변화

결론

서론

관, 유통시키는 기관이며, 대학과 그 대학이 위치한 인접지역의 정보인프라(infra-structure)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이 가지는 이러한 학문연구 및 교육의 기본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은 대학내에서의 위치적 한계성과 도서관의 보수적인 기류,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체로 본래

1. 연구목적

대학도서관의 기능은 대학에 속한 제 구성원들(교직원, 학생)의 학습이나 교양, 연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정리, 보

* 이 글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14차 워크샵」(1999.10.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강대학교도서관 참고봉사실 사서(jaeyoung@ccs.sogang.ac.kr)

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많은 도서관들이 '90년대 초부터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데이터베이스들, LAN환경에서의 운영, 각종CD-ROM의 증가와 근래 들어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인터넷(internet),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웹(web), 정보고속도로, 초고속정보통신망, 전자우편이라든가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도서관인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멀티미디어 도서관(multimedia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가상현실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등의 용어들이 일반 대중은 물론 정보전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에게조차 익숙해지기도 전에 벌써 보편화된 용어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¹⁾ 도서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서관의 위치와 성격을 재규정하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방향설정을 해야 할 시점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존재이유가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가장 체계적이고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 대학도서관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은 도서관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변화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요구사항의 분석을 통해 도서관 조직의 재구성파 사서의 역할 변화 그리고 서비스의 변화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그렇듯 이용자가 외면하는 도서관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사고로의 전환 없이는 도서관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

“20세기 대학도서관의 평가가 장서보유량에 그 기준을 두었다면 다가 올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의 평가기준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어떻게 접근시켜 줄 것인가²⁾에 달려있으며 대학도서관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때만 생존할 수 있고, 제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중에서 주제관으로의 체제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반응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방향의 제시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모델로서 주제관과 주제전문사서제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구체화되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문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가 주제관형태로 바뀌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8년 10월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토대로 도서관 내의 조직 및 사서의 변화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제로의 전환을 구상해보았다.

물론, 각각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요인(예산, 인력 등)과, 주변환경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용자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전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제시를 통한 다른

1) 손준표, "21세기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에 관한 고찰," 도서관문화, 37권5호 (1996.9-10)

2) 한상완 등,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9권 (1995.12), pp.64

대학도서관 변화의 동기유발과 함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를 모델로 하지만, 학자들의 견해와 서구 대학도서관의 변화와 대처방안 그리고 변화를 같이 다룸으로써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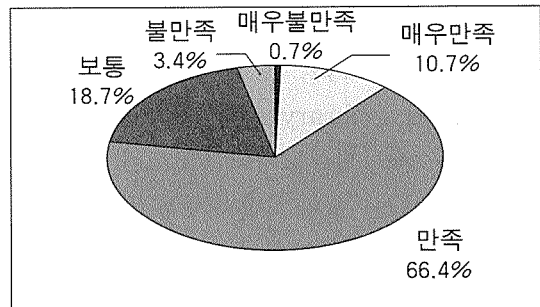
1.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 주제관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설문조사³⁾는 정보검색, 참고봉사, 도서관이용 및 환경부문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주제관 및 주제전문사서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조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이용방법의 차이, 그리고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변화 후 만족도만을 발췌하였다.

① 주제관 변경 만족도

3개의 주제관(제1관: 종교·철학·총류관, 제2관: 이공·인문관, 제3관: 사회과학관)으로 운영체제가 바뀐 이후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응답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만족, 매우 만족한 이용자가 517명으로 77.1%가 만족하다고 대답했으며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단지 28명으로 4.1%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주제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관 만족도	응답자(명)	백분율(%)
매우 만족	72	10.7
만족	445	66.4
보통	125	18.7
불만족	23	3.4
매우 불만족	5	0.7
계	670	100.0
무응답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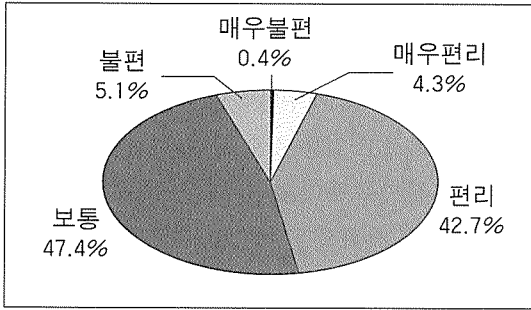


② 각 주제관 참고봉사실 운영체제

주제관에는 각각의 주제별 참고봉사실이 있으며 이곳에서 주제별 참고질의와 정보제공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체제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때보다 314명(47%)이 편리,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316명(47.4%)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불편, 매우 불편이 37명(5.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용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체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봉사실 운영체제	응답자(명)	백분율(%)
매우편리	29	4.3
편리	285	42.7
보통	316	47.4
불편	34	5.1
매우불편	3	0.4
계	667	100.0
무응답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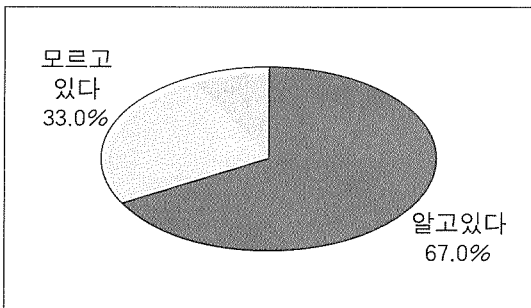
3) 설문조사의 전 내용은 도서관메일링리스트(<http://delias.dongueui.ac.kr/mailling/>)의 공개자료실에 8월25일(설문지내용)과 8월30일(설문지분석결과)자료 올려져 있다.



③ 각 주제관 참고봉사실 위치 인지도

새로운 도서관체제로 전환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제구분에 따라 참고봉사실이 세군데로 나뉘어진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67.0%)의 이용자가 알고 있긴 했지만 33.0%의 이용자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제변화에 따른 효과적이고 빠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고봉사실위치	응답자(명)	백분율(%)
알고있다	450	67.0
모르고 있다	222	33.0
계	672	100.0
무응답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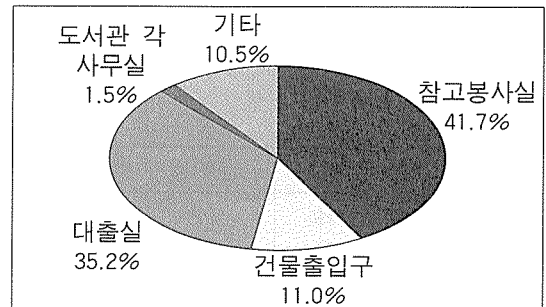


④ 도서관이용에 관한 질문장소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도서관이용에 관한 질문을 어디에서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참고봉사실이 270명(41.7%)으로 가

장 많았고 대출대가 228명(35.2%)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따라서 도서관 체제가 바뀐 경우 도서관 이용에 관한 안내의 필요성과 함께 참고봉사실에서의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대출대나 출입구에서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다양한 안내 방법이 고려되어져 이용자들의 도서관이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질문 장소	응답자(명)	백분율(%)
참고봉사실	270	41.7
건물출입구	71	11.0
대출실	228	35.2
도서관 각 사무실	10	1.5
기타	68	10.5
계	6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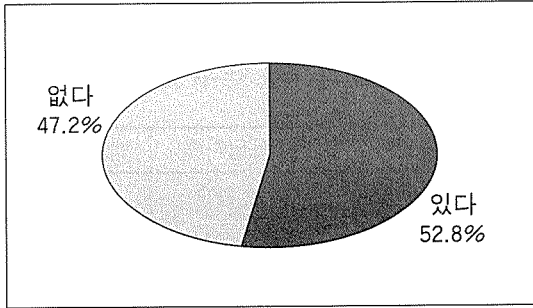


⑤ 참고질문 경험 유무

주제관에 위치하고 있는 각 주제전문사서에게 참고질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50명(52.7%)이고, 313명(47.2%)은 참고 질문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이런 수치는 주제관으로 바뀐지 1년이란 시점에서의 조사이긴 하지만, 주제관과 이에 따른 사서의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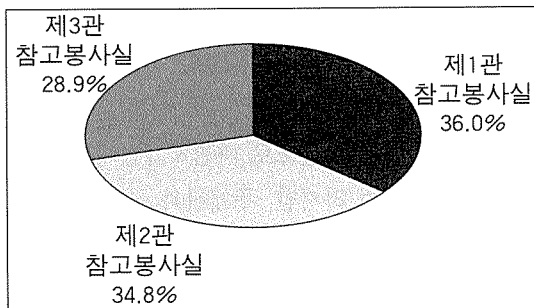
참고질문 경험유무	응답자(명)	백분율(%)
있다	350	52.8
없다	313	47.2
계	663	100.0
무응답	19	



⑥ 참고질문 장소

참고질문을 해본 응답자 350명의 참고질문 장소는 전 주제관, 즉 1관(종교 철학 총류관), 2관(이공 인문관), 3관(사회과학관) 참고봉사실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참고질문장소	응답자(명)	백분율(%)
제1주제관 참고봉사실	122	36.0
제2주제관 참고봉사실	118	34.8
제3주제관 참고봉사실	98	28.9
계	338	100.0
무응답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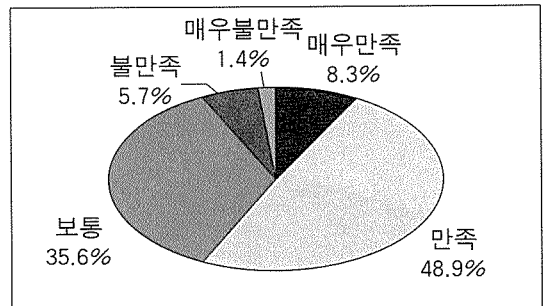


⑦ 참고질문 응답 만족도

참고질문 응답 결과에 대해서는 199명(57.2%)이 만족, 매우만족으로 답변해 응답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5명(7.1%)으로 전체적인 참고질의에 대해 주제전문사서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치는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용자들의 도서관이용에 있어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질문 응답 만족도	응답자(명)	백분율(%)
매우만족	29	8.3
만족	170	48.9
보통	124	35.6
불만족	20	5.7
매우불만족	5	1.4
계	348	100.0
무응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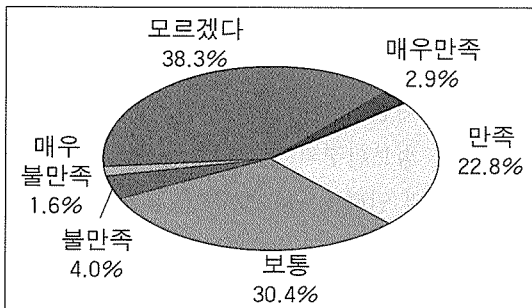


⑧ 각 주제관 참고봉사실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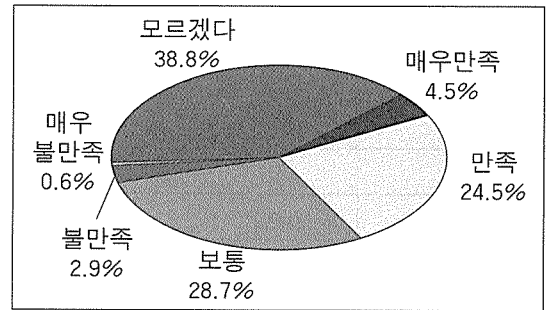
앞의 질문을 좀더 세분화하여 일반적인 참고질문 이외에 각 주제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앞의 결과

와 특별히 다른 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는 결국 참고질문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서비스의 만족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용자의 참고질의와 정보서비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체계적인 봉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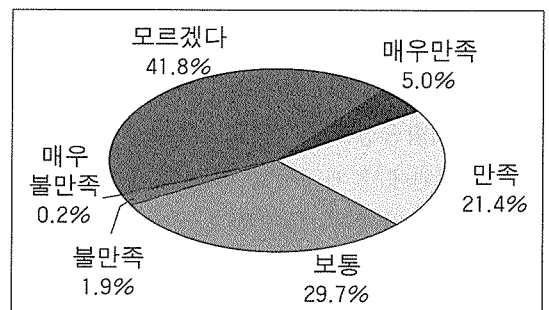
1관 참고봉사실	응답자(명)	백분율(%)
매우만족	18	2.9
만족	142	22.8
보통	190	30.4
불만족	25	4.0
매우 불만족	10	1.6
모르겠다	239	38.3
계	624	100.0
무응답	58	



2관 참고봉사실	응답자(명)	백분율(%)
매우만족	28	4.5
만족	153	24.5
보통	179	28.7
불만족	18	2.9
매우 불만족	4	0.6
모르겠다	242	38.8
계	624	100.0
무응답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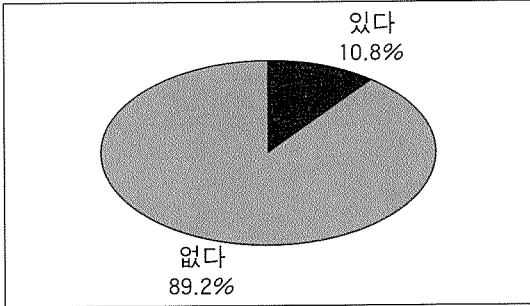
3관 참고봉사실	응답자(명)	백분율(%)
매우만족	31	5.0
만족	133	21.4
보통	185	29.7
불만족	12	1.9
매우 불만족	1	0.2
모르겠다	260	41.8
계	622	100.0
무응답	60	



⑨ 이용자 특강

각 주제관 참고봉사실에서는 한 학기에 3~4회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검색 및 논문작성법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 특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72명(10.8%)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이 가장 많았다.

이용자특강참석	응답자(명)	백분율(%)
있다	72	10.8
없다	592	89.2
계	664	100.0
무응답	18	



이용자 특강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8명(66.7%)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으며, 학년별 분석결과 이용자특강에 대한 만족도 역시 4학년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이용자특강에 참석할 것을 희망한 응답자는 379명(58.2%)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항목으로 첫째, CD-ROM학술정보 및 인터넷 정보검색 둘째, 현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내용 셋째, 참고봉사실에서 제공하는 업무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각 학년별, 주제별 내지 자료별 특성화를 통한 도서관이용교육이 필요하고, 좀더 다양한 방법에서의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설문결과를 통해 이용자들은 주제관형태로의 도서관의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각 주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제관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질문을 해당 주제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용자교육에 관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과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제관으로 변화한 시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이용안내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주제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주제관의 사서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발되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2. 대학도서관 변화의 방향 : 주제관 모델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전체적인 체제와 인력의 배치 그리고 서비스는 이용자를 중심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더구나 변화하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과 더불어 다분히 대학도서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정보환경의 변화 즉, 매체의 전자화, CD-ROM과 인터넷, 정보통신을 통한 직접적인 이용자와 매체와의 연결속에서 대학도서관의 능동적인 변화는 어떤식으로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주제관과 주제전문사서를 활용한 보다 전문화되고 적극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제까지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와 함께 문제점을 통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주제전문사서는 최근 한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한국 대학 도서관 현장에서 특정 학문분야의 주제지식을 가지고 장서개발과 참고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즉, “아직 우리 현장에서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래 지향적이며, 한국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주제사서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는 사서는 대체로 포괄적인 주제분야(예컨대,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자료를 담당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제사서는 담당 학문분야의 ‘서지전문가’이지 그 학문분야의 ‘전문연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⁴⁾

해외 많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bibliographer’, subject bibliographer’, ‘subject librarian’, subject specialist’,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subject reference librarian’, ‘information consultant’ 등의 명칭이 국내의 대학들에서는 주제담당사서제, 주제담당전문사서제, 주제전문정보서비스제, 학과전담사서제, 주제담당사서, 주제별 전담사서, 주제전문사서, 주제별 자료 전문사서, 자료실 담당사서 등 다양하게 사용⁵⁾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도서관에서의 이들의 대체적인 역할이나 직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주제전문사서’로 통칭하기로 한다.

주제전문사서가 등장한 것은 우선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수요와 정보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지도 및 개발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이용자 봉사의 철학에서 탄생하였다.⁶⁾

더구나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특성상 ‘주제’나 ‘학과’ 중심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입수되는 자료에 대한 처리와 자료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조직유형은 자료의 보관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편리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특정 주제의 자료가 분산 비치되어 이용자의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최근 정보기술에 따른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대학의 근간을 이루는 학과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 구성원인 이용자들의 ‘주제’ 요구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주제별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 기존의 자료 중 비도서자료 등의 특수자료를 제외한 모든 인쇄자료는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의 영역으로 군집화하는 주제별 조직체제를 취하여 보다 이용자 지향적인 조직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제분야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부문화 도서관은 장서가 늘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대개는 이용자의 편의와 서비스가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채택되어 온 것이다. 학술 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는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에 찾아오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도서관 측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쉽게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주제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서비스 향상에 직결되며, 주제전문사서의 활동은 도서관 조직, 그 주제의 분화에 따라서 촉진된다”는 연구⁷⁾와 함께 “정보이용 가능성의 지속적인 증가, 학생 중심적인 시각으로의 변화, 정보증제

4)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방안,” 도서관학논집 29권 (1998), pp. 273-311

5) 강혜영, “대학도서관 주제담당사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1999.8

6) 구자영,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도서관학 6권 (1979.12), pp. 39

7) Kikuchi, Shizuko, “The Subject Specialist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 (1977), pp. 85-95

자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와 같은 주제접근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⁸⁾고 보는 견해도 있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주제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제별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주제화 된 이용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⁹⁾들도 있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주제별 서비스의 중요성과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주제별 자료실이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수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하는 조직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볼 때, 근래 정보기술의 발달과 도서관 자동화로 인해 도서관의 조직구조가 주제별 자료실이라는 수평적 조직구조로의 변화를 가능케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며, 주제별 자료실을 담당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의 주제전문사서가 대학도서관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의 특정 주제분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 전문사서가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실정에 맞는 개념의 주제별 서비스를 도입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특정주제분야의 전문사서가 아닌 특정 주제분야를 책임지고 봉사하는 주제담당사서제의 도입이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봉사전략은 이용자와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제담당사서제는 이용자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¹⁰⁾

2. 1 도서관조직의 변화

대학도서관 조직이란 도서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들의 직무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위양(委讓)하여 각 직무의 제관계를 종합적으로 확립한 인간행동시스템¹¹⁾이라 할 수 있는데 도서관 조직에 관한 문제는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자동화와 전산화의 도입으로 반복업무와 수작업 시스템의 한계성이 극복되고 경영경비의 절감 그리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봉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가능성의 제기와 도서관 운영의 중심시각이 자료관리로부터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물론, 도서관조직을 재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연히 이용자의 요구와 이런 요구를 좀 더 다양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¹²⁾

그러나 이제까지의 도서관은 이용자 봉사를 우선으로 하기보다 도서관측의 자료관리나 기능적인 측면을 우선으로 한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주로 기능별, 자료유형별 기준에 의해 부서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기능별 부서설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모형이기 때문에 새로

8) John V. Martin,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 A second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8.3 (1996). pp. 163

9) 이수상, 대학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1995. 9. pp. 119-135

10) 강혜영, 《前掲書》, pp. 2

11) 윤희운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선모형연구" *도서관학*. 22집 (1992). pp. 400

12) John V. Martin, op. cit., pp. 166

운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하고,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며, 인적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기술 서비스와 이용자 서비스로 분리된 체제하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예상하거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¹³⁾ 실제로 아직도 많은 도서관들이 도서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질문 및 정보요구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정보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에 노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봉사가 도서관활동의 최일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앞으로 도서관은 사회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효용성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주장할 수 밖에 없고, 도서관의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보봉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쓸모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길 밖에 없다.¹⁴⁾

“모든 조직에 적합한 이상적인 조직구조는 있을 수 없다”¹⁵⁾는 주장처럼 대학도서관들은 개개의 조직목표와 현실적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몇몇 선진국들의 예를 통해 그 실상을 점검해 봄으로 우리 도서관의 조직을 설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도서관 체제가 자동화·전산화 되면서 도서관 각 부서 및 업무에 많은 변화가 온 사례들이 있다. 모리타와 가펜(I.T. Morita and D. k. Gapen)이 OCLC에 가입한 대학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편목담당전문사서가 오하이오주립대

의 경우30%, 아리조나 주립대의 경우22%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덴마크의 공과대 학 도서관 (Technological University Library)이 1987년에 수서와 편목 및 정기간행물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마틴(J.V. Martin)이 영국 대학도서관의 주제 전문화 경향을 1982년과 1996년에 비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직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기능별(functional)범주가 6개 도서관, 선임직원들은 주제에 의해 나뉘어진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중앙화된 토대에서 운영되어지는 나머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원적(dual)범주가 29개 도서관, 선임직원의 일부 또는 모두가 주제에 의해 분할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앙화된 토대에서 운영되는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혼합형(hybrid)이 4개 도서관, 선임직원들 대부분이 주제에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보조직과 사무직의 지원을 받는 중간등급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3단계(three-tier)범주가 2개 도서관, 선임직원과 일반직원으로 구성되어 중앙도서관과 완벽하게 기능적 위치적으로 분리된 주제전문팀이 있고 이 팀들은 중앙화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조직의 지원을 받게 되는 주제구분형(subject divisional)이 3개 도서관이었다. 이는 1982년의 조사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주제사서들이 주제를 근거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이원적·3단계·주제구분형 범주가 28개에서 34개 도서관으로 늘어난 반면, 주제사서가 전혀 없거나 또는 주제를 근거로 한 책임들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기능별·혼

13) 강혜영, <前掲書>, pp. 1

14) 이용훈, “정보봉사,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 도서관문화, 37권3호 (1996.5·6), pp. 170

15) Evelyn Daniel, “Informatio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4,3 (1983,5), pp. 222-228

합형 범주가 33개 도서관에서 10개 도서관으로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¹⁶⁾ 이처럼 오늘날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기존의 편목부서와 수서부서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제분야를 강화한 정보봉사를 주축으로 나머지 부서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달과 도서관 전산화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도서관 서비스를 비롯한 조직구조 전반에 변화를 주장하는 논의들이 잇따르고 있다. 강진백의 연구¹⁷⁾와 이용훈의 연구¹⁸⁾에 따르면 정보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력을 학문영역별로 집단화함으로써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주제분야 자료실을 두고 이곳에서 수서, 정리, 이용자봉사 일체를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학구성원들에게 제공하던 종래의 자료중심기관에서 지적인 조사, 연구활동과 정보봉사 업무에 주력하는 봉사지향기관으로의 변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전자정보현황하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¹⁹⁾ 이처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성격이나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선행단계로 조직의 개편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대학 내 이용자들의 현재적 요구는 물론 잠재적 요구까지 고려해 자료조직과정보다는 그 결과 제공되는 정보봉사에 치중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요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

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조직구조는 대학사회의 연구활동 및 자료요구가 극히 세분된 주제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자료 및 서비스를 주제화한 구조로 개편되거나, 기능별 조직을 전체조직의 틀로 유지하면서 봉사적 기능을 강화하는 주제별 부문화를 시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대 도서관이 이용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 일종의 주제별 전문화는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²⁰⁾라는 말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2 인적자원의 변화 - 주제전문사서의 양성

정보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에 따른 안내도구, 전문가시스템의 개발로 미래의 정보중개자로서의 사서의 위치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시말해, 여러 전자도구들이 이용자들의 정보 액세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봉사를 담당하는 사서의 역할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무용론과, 사서의 역할 확대와 위치재정립을 통해 오히려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건으로서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사서는 분명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도서관내외의 환경의 변화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의 영역이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참고사서의 역할은 어떻게든 변

16) John V. Martin, op.cit., pp. 164

17) 강진백,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편방안,” 도서관 49권1호 (1994), pp. 94-112

18) 이용훈, <前掲書>, pp. 161-173

19) 윤희운, <前掲書>, pp. 397

20) Marie Angela Bastiampillai and Peter Havard Williams, “Subject Specialization Re-Examined,” Libri, 37.3 (1987.9), pp. 208

화되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 방향은 좀더 세분화하고 전문화 되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빠르고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로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전문사서에 관한 논의는 대학도서관에서의 여러 현실적 어려움들로 인해 서구의 이론과 그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호칭과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한국적 토대에 맞는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주제전문사서에 관해 이용재는 “아직 우리 현장에서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래 지향적이며, 한국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주제사서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는 사서는 대체로 포괄적인 주제분야(예컨대,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자료를 담당한다”²¹⁾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한국적 상황에 적절한 정의라 할 수 있으며, 주제영역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서구 대학도서관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주제전문사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의 참고사서의 역할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 “첫째, 자료의 선정·수집 및 균형있는 장서구성의 기능 둘째, 이용자들이 정보자료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 내지 비공식적 안내 및 강의의 기능 셋째, 자료이용상담을 포함한 최신정보주지 활동과 서지 및 독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 정보서비스 기능 넷째, 학생 및 각 학과와 유관 기

관간의 연계 기능 다섯째, 특정 주제에 관한 학자로서의 개인적 요구 혹은 연구진의 일원으로서의 연구 기능 여섯째, 분류 편목 및 색인 초록 등을 작성하는 서지통정 기능 일곱번째, 대학도서관 상위 전문직으로서 주제열람실 혹은 중앙도서관에서의 운영관리 기능 여덟번째, 대외적으로 도서관의 문제해결자적 기능”²²⁾을 주제전문사서의 역할로 정의한 학자도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참고사서의 역할에 정보접근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을 겸비한 정보제공기능 둘째, 세련된 정보 탐색기법 및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교육적 기능 셋째,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의 액세스와 평가에 까지 능동적으로 간여하는 상담기능 넷째,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전자매체를 통해 찾은 자료에 대한 평가와 그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정보평가기능”²³⁾을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들이 기존의 참고봉사를 담당하던 참고사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제전문사서는 참고사서의 기존의 기능들에 매체접근 기술의 다양화와 함께 주제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제전문사서들은 정보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폭넓은 이해, 정보기술의 내용 및 비용 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도구 활용능력까지도 겸비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한 정보중개자로서의 기존의 역할에서 사서 스스로 정보의 평가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나갈 때 사서의 새로운 위치정립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21) 이용재, 《前掲書》, pp. 273

22) 한상완,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pp. 66

23) 노옥순, “온라인 정보기술 환경과 참고사서의 역할 재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권2호 (1998), pp. 121-142

리고, 이러한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이 개개의 대학도서관의 사정에 맞게 적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주제전문사서가 담당하는 주제분야의 관련 학과, 이용자층, 이용자수, 자료의 유형과 장서량, 인력과 예산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한 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이용자봉사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다면, 정보평가자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단순한 자료 제공의 역할만이 아니라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교육에서부터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학문 영역별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이 덧붙여지게 된 현실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에서 다른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원과 정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는 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학에서 다른 학문을 이수한 학생들을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에 지원토록 하는 유도책을 마련하는 방법과 문헌정보학을 대학에서 이수한 사람에게 타 주제의 학문을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현장에 있는 사서들에게도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기존 사서들을 교육을 통해 주제전문사서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아닐지라도 청강이라든가 주제별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한 교육을 말하며, 산발적 교육보다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과정이 바람직하다. 셋째, 각 대학의 주제전문사서들간의 협력을

통해 주제별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정보접근 방법을 공유해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대학도서관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열거된 이런 방법들을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게 혼합해 사용하고, 이와 더불어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나 단체 그리고 개개의 도서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3 서비스의 변화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개개인의 정보활동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독자적 탐색과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적 변화와 이용자층의 변화는 결국 도서관의 기능을 정보제공중심에서 교육과 지도, 상담기능을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즉각적인 정보제공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용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능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도서관에서는 다양해지고 있는 정보원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소개 등 이용자들의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자료나 정보를 구하는 것을 돕는 지도나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²⁴⁾

아직도 많은 이용자들은 사서의 정보제공이나 상담, 이용교육 그리고 정보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의 대학도서관은 대학특성과 현실적 요건을 가미한 다양한 정보봉사의 창출과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다음은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의 성격과 특성에

24) 이용훈, 《前掲書》, pp. 164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해 보았다.

첫째, 대학교육과 학습을 위해 올바른 도서관 이용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의외로 도서관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도서관을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과 자료의 이용법 및 도서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예절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⁵⁾

물론, 신입생들에게 대학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설명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대학도서관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심어 주고, 도서관을 좀더 친근감있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오리엔테이션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도서관 견학 및 강좌의 보완과 효과의 극대화, 이용의 편의성의 보완 그리고 주제전문사서들에게 행해지는 단순한 성격의 질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이용안내 보조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도서관 전체에 관한 이해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 게시형이건 전자매체를 활용한 방법이건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이용안내를 해줄 수 있는 안내판의 설치를 의미한다. 도서관 이용 팸플렛의 비치,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의 활용, 또는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의 하나로 도서관입구에 Information Desk를 설치·운영하는 방법 등도 들 수 있는데 Information Desk설치가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서강대학교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질문 장소

로 대출실(35.2%)과 건물출입구(11.0%)를 합한 수치(46.2%)가 각 주제관 참고봉사실(41.7%)보다도 많다는 점에서 보여지듯 많은 이용자들이 주제관으로 오기 전에 도서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을 도서관에 들어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곳에서 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경우 처음 질문하는 곳에서의 이미지가 도서관 전체의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고,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수 있다. 강은영의 조사결과²⁶⁾에서도 도서관 이용 지원서비스 중 이용에 도움이 되는 보조수단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60%로 가장 많았다.

셋째, 주제별, 자료형태별 또는 이용자별 다양한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제전문사서를 활용한 주제별 학술정보검색법이 나,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기초정보검색법, 검색된 정보자료를 활용한 논문작성법 등 내용을 다양화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의 경우 각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학과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소개 및 이용법 그리고 논문작성법까지 강의를 담당해 주고 있으며, 이런 주제별 특강시에 주제접근을 돕기위한 서지도구(예, 영문학, 영어학관련 정기간행물 및 참고도서목록 등)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강좌개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능한 많은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김성자의 논문²⁷⁾에서 제시한 컴퓨터 지원 교육(Computer Assisted Instruction)도

25) 강은영, "대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의 평가: 부산지역 한 종합대학도서관을 표본으로," 도서관문화 39권1호 (98.1·2), pp. 49

26) 강은영, <上揭書>, pp. 47

27) 김성자, "www기반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시스템 개발," 송의전문대 문헌정보학 연구지 24집 (1998.12), pp. 39-51

인터넷을 활용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의 원격교육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가능하다면 도서관활용, 정보검색 그리고 논문작성법을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과목을 정규교과과정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나 영어 못지 않게 도서관의 올바른 활용은 개개인의 정보활용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도서관을 이용자와 좀더 가깝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앞으로 이용자들은 직접 도서관에 오기보다는 집이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원문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참고질의나 정보검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도서관으로 오기보다는 전자게시판이나 E-mail을 통해 주제관의 주제 전문사서와 의논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사서와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라는 측면과 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라는 점에서 계속 확대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제전문사서의 홈페이지를 개설, 이용자들이 접속해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제별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여섯째, 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과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해 지역정보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개개의 대학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보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보요구를 흡수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개발은 곧 열린도서관을 향한 도서관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다루어 본 각각의 서비스들은 물론

개개의 대학 현실과 여건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어야 하며 학교당국과 도서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를 수행하는 사서들의 자세가 성공의 관건이 됨은 물론이다.

결론

21세기 대학도서관은 시대적, 교육적 환경 및 정보환경의 변화 추이로 볼 때 분명 불확실성의 시대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와 활동내용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화의 방향은 물론, 대학도서관의 전통적 기능이었던 자료의 보관적 기능과 정보안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자봉사 즉, 교육적 기능과 정보평가자로서의 기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대학도서관이라는 특성에 맞게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주제서비스의 제공과 이런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도서관 조직과 그 구성원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다루어진 주제관²⁸⁾과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서강대학교 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수직적이고 기능적인 구조에서 주제관을 기초로 한 수평적 구조로의 변화가 보다 개개인과 개별학과에 근접되고, 깊이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용자 정보서비스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이용자와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즉, 주제전문사서의 배치는 일단 성공적인 기틀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진 후 1년밖에 되

28) 참고로 주제관형태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다음과 같다.

계명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전주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양대 (총 12개 대학)

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긴 하지만 그 이후의 운영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대학도서관과 다양한 서비스, 교육 및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해야 할 사서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완벽한 서구의 주제전문사서제의 모형을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 여건상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개개의 대학도서관의 특성과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모델의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은 보다 한 걸음 나아간 도서관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다양화·개별화되고 있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도서관의 조직구조는 분명 변화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모델로의 주제관

형태의 수평적 조직구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제관을 담당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인적자원으로서의 주제전문사서가 현실적 변화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미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를 상대로 한 도서관차원에서의 서비스의 다양화와 교육적기능의 강화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주제관의 성공적인 운영은 무엇보다도 능력있는 주제전문사서의 확보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문헌정보학 관련학과, 관련단체 및 협회가 다같이 노력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끝으로, 주제관과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한국적 상황에 맞고, 각 대학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다양한 모델과 방법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인터넷과 정보활용

유 재 옥 저

373쪽/4×6배판
정가/ 15,000원
회원보급가 12,000
ISBN 89-7678-042-6

<주요목차>
인터넷 개요/인터넷 접속/인터넷 서비스/전자메일(e-mail)/월드와이드 웹(WWW)/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유즈넷 서비스/웹검색기법/검색엔진/탐색 대상별 검색엔진/태그를 이용한 홈페이지 작성/자바(JAVA)추천 웹사이트

현대관리정보학총서 31 목록의 이해

김 태 수 저

265쪽/신국판
정가/ 10,000원
회원보급가 8,000
ISBN 89-7678-041-8

<주요목차>
목록이란 무엇인가/목록의 역사/기술목록/표록의 기능과 선형/기계가독목록/네트워 크자원의 목록/주제명 목록/전자제어

구입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